

주요개념 : 불안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정도

박선남* · 문영임** · 박호란** · 최선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백혈병은 백혈구의 악성 증식으로 생기는 질환이며 소아암 중 가장 흔한 질병이고 소아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홍경자 등, 1993 : 홍창의, 1994).

백혈병을 가진 아동은 주기적인 채혈, 골수 및 요추천자 등의 어려운 검사와 화학요법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상태 악화나 혈액기능의 이상으로 잦은 감염이나 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Whaley & Wong, 1997).

백혈병 환아를 돌보는 가족은 질환의 장기화와 더불어 질환과정 동안의 고통스러운 치료나 검사 및 아동의 상태와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으로 다른 질환 아동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게 된다(steele, 1989). 이러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고통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백혈병 환아를 주로 돌보는 어머니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을 경험한다(문영숙, 1989 : 박승현, 1996 : Jay & Elliott, 1990 : Magni, Messina, De Leo, Mosconi & Carli, 1983 : Rao, Malhotra & Marwaha, 1992)

환아의 어머니는 낯선 병원환경에 대한 불안, 불확실

한 미래에 대한 불안, 증상이나 처치 및 치료로 자녀가 당하는 고통, 역할수행에 대한 죄의식 및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불안을 갖게 된다(김미원, 1988 : 노승욱, 1984 : 조희, 1980 : 홍경자와 김정은, 1977).

어머니의 불안은 아동의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이상미, 1981 : Sheldon, 1997 : Tiedeman, 1997), 아동의 낯선 병원생활의 적응과 질병 회복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arlow, 1988 : Whaley & Wong, 1997).

이렇듯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위험 신생아, 입원 아동, 심장병 아동, 신중후군 아동의 어머니 불안 정도를 확인한 연구는 있지만 아직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동에게 흔하며 경한 외과질환인 편도선절제술과 소아내과질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질환 아동의 어머니 불안을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과 비교하여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정도를 확인하고 백혈병 아동과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를 알아본다.
- 2) 백혈병 환자 어머니와 편도선절제술 환자 어머니, 내과질환 어머니의 상태불안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3) 백혈병 환자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상태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3. 용어 정의

- 불안 : 위협받는 상황에서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또는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과 역할에 직면하게 될 때 발생하는 주관적 정서반응으로서 내적인 조절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막연한 불쾌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의 상태불안 척도로 측정된 불안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하는 상태불안을 말한다.

II. 문헌 고찰

백혈병은 소아암 사망의 40~50% 차지하는 질병으로 (홍, 1994) 주기적인 채혈, 골수천자 등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검사와 힘든 화학요법을 필요로 하며, 세심한 주위와 보호를 하지 않으면 면역상태의 악화나 혈액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잦은 감염과 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한다(Whaley & Wong, 1997).

백혈병 환자는 질환의 장기화와 함께 고통스러운 치료와 검사,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으로 다른 질환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는다(steele, 1989). 즉 진단받은 후 치료나 검사를 위해서 진단아동의 50% 이상이 한달이상 입원하게 되고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외래방문 및 잦은 감염이나 재발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됨으로써 가족은 환아에게 많은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Lilly, 1990 : Woods, Lewis & Ellision, 1989). 특히 아동의 주된 간호제공자인 어머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Magni 등(1983)은 백혈병 환자의 부모와 다른 질환아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백혈병 환자의 부모가 다른 질환아 부모보다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ao 등

(1992)의 연구에서도 백혈병 환자의 부모와 다른 만성 질환아 부모의 정서적 상태를 비교연구한 결과 백혈병 환자의 부모가 다른 만성 질환아의 부모보다 행동장애, 불안, 우울, 정신적 증상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부모 중 어머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혈병 환자 어머니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혈병 환자의 부모가 경험하는 불안은 아동의 불안 및 병원생활의 적응, 질병의 회복,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이, 1981 : Marlow, 1988 : Sheldon, 1997 : Tiedeman, 1997 : Whaley & Wong, 1997).

여러 문헌에서, 환자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의 이유로 낯선 병원환경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증상이나 처치 및 치료로 자녀가 당하는 고통, 역할수행에 대한 죄의식 및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을 들고 있다(김, 1988 : 노, 1984 : 조, 1977 : 홍과 김, 1977).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 불안 정도를 확인한 국내연구들로는, 노(1984)은 학령기 환자의 일반적인 공포감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학령기 입원 환자 어머니와 정상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하여 학령기 입원 환자의 어머니 불안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소영희(1988)는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불안이 정상 신생아 부모의 불안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1989)은 입원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백혈병, 악성종양, 선천성 심질환, 신증후군, 류마티스열, 결핵성 뇌막염 등의 만성질환과 급성상기도염, 소화기 감염, 급성 신우신염 등의 급성질환 아동의 어머니 불안을 비교한 결과 만성질환아 어머니가 급성 질환아 어머니보다 더 많이 불안을 경험하며 어머니의 교육정도, 거주지, 입원경험, 소득에 따라서 어머니 불안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조인숙(1992)은 입원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정상 아동 어머니의 불안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불안이 높았다고 하였다. 문영임과 박호란(1996)은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정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종교가 있는 경우, 기혼인 경우, 타자녀상실 경험이 없는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입원기간이 3일이내인 경우, 자녀가 첫째나 둘째인 경우에서 불안이 낮았으며 아동의 질병에 따라서는 이비인후과, 안과 성형외과계 질병이 소아내과계, 정형외과·일반외과·신경외과계 질병보다 어머니 불

안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박승현(1996)은 환아의 질병특성에 따른 불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백혈병과 암을 치명적 질환으로, 신증후군·관절염·빈혈·혈우병 등을 만성질환으로, 폐렴·고열·설사·상기도 감염 등을 급성질환으로 분류하여 아동의 불안과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한 결과로 치명적 질환, 만성질환, 급성질환 순으로 아동의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불안은 치명적 질환이 만성질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현재 국내 연구들은 아동의 질병과 관련없이 입원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정상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한 연구들과 아동의 질병에 따른 어머니 불안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질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입원한 2~15세 백혈병 환아의 어머니 100명과 강남성모병원과 성모병원에서 편도선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5~15세 환아의 어머니 80명, 내과질환(암을 제외한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으로 소아과에 입원한 6~13세 아동의 어머니 112명, 총 292명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Spielberger(1970)의 상태-기질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중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였다.

상태불안 척도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4점 척도로서, 10 개의 부정문항을 포함한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아주 많이 그렇다 4점으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 척도의 Cronbach's α 는 0.89이었다.

3. 자료 수집

연구자가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백혈병 환아의 어머니와 내과질환아의 어머니는 입원 첫날 입원병실에서,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첫날 즉 수술전날에 입원병실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백혈병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빈치를 구하였다. 백혈병 환아 어머니와 편도선절제술 환아, 내과질환아 어머니간의 불안 차이는 분산분석(ANOVA) 및 다중비교(Scheffé test)를, 백혈병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unpaired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최저 22점~최고 77점으로, 평균 54.16 ± 11.18 점 (2.71 ± 0.55 점)이었다(표 1).

2.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비교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과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내과질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F=8.00, P=0.0004$)(표 2).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2.71 ± 0.55)은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2.38 ± 0.52)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내과질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2.54 ± 0.56)보다 평균은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과질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2.54 ± 0.56)은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 상태불안(2.38 ± 0.55)보다 평균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3. 백혈병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

〈표 1〉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
(실수=100)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빈치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42	0.85	2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2.07	0.99	1
3. 나는 긴장된다.	2.72	1.03	2
4. 나는 후회된다.	1.97	1.11	1
5. 나는 마음이 가볍다.	1.81	0.96	1
6. 나는 속상해서 화가 난다.	2.51	1.10	2
7. 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2.76	1.08	4
8. 나는 안정된 마음이다.	2.12	0.95	2
9. 나는 불안하다.	2.46	1.00	2
10.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1.97	0.94	1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2.47	1.00	2
12. 나는 짜증이 난다.	2.11	0.93	2
13. 나는 조마 조마하다.	2.56	1.09	2
14. 나는 신경질이 날 정도로 과민해졌다.	2.21	1.03	2
15. 나는 마음이 무근하다.	1.84	0.90	1
16. 나는 만족스럽다.	2.09	0.96	1
17. 나는 걱정스럽다.	2.75	0.90	2
18. 나는 흥분되고 마음이 들뜬다.	1.80	0.90	1
19. 나는 즐겁다.	1.47	0.82	1
20. 나는 유쾌하다.	1.43	0.76	1
총 점	54.16	11.18	
총점평균	2.71	0.55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학력, 종교, 타자녀의 상실경험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차이가 없었다(표 3).

또한 백혈병 환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차이가 없었다(표 4).

V. 고찰 및 논의

백혈병 환아는 고통스러운 검사 및 치료과정 그리고 잦은 감염과 재발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들의 어머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

며 이러한 어머니의 불안은 아동의 질병회복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백혈병 환아 어머니가 환아의 질병에 대처하고 환아를 보다 잘 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은 2.71±0.55 점(54.16±11.18점)으로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2.38±0.52점과 내과질환아 어머니의 불안 2.54±0.5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8.00, P=0.0004). 즉, 장기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백혈병이 부모 불안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술을 요하는 외과질환(편도선절제술)보다 어머니의 불안을 더 많이 야기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1989)과 박(1996), Marlow(1988), Fergusson(1976)이 보고한 다른 질환아 어머니보다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문과 박(1996)은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2.34±0.61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은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보다 매우 높았다. 또한 조(1992)은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55.5±11.50점,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이 40.8±8.32점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인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 54.16±11.18점과 비교해 볼 때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유사하였으며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1984)은 학령기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55.6±13.92점,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을 46.00±11.74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또한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유사하였고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보다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1992)와 노(1984)의 연구에서 입원 환아의 정확한 진단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백혈병이나 그 밖의 심각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조(1992)와 노(1984)의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본 연구의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유사한 이유로 사려된다. 그러나 조(1980)가 보고한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 2.59점

〈표 2〉 백혈병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비교 (실수=292)

	실수	평균	표준편차	F	p
백혈병 환아 어머니	100	2.71	0.55	8.00	0.0004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	80	2.38	0.52		
내과질환아 어머니	112	2.54	0.56		

] Scheffé test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표 3〉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

(실수=100)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실수(%)	평 균	표준편차	t / F	P
연 령	20~29세	5(5)	2.75	0.82	2.26	0.0866
	30~39세	64(64)	2.70	0.50		
	40~49세	30(30)	2.76	0.59		
	50~59세	1(1)	1.31	0.00		
학 력	중 졸	10(10)	2.67	0.47	1.16	0.3308
	고 졸	50(50)	2.79	0.53		
	대 졸	40(40)	2.60	0.61		
종 교	있 다	82(82)	2.67	0.54	1.41	0.1622
	없 다	18(18)	2.87	0.62		
타자녀의 상실경험	있 다	6(6)	2.58	0.46	0.59	0.5510
	없 다	94(94)	2.72	0.57		

〈표 4〉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

(실수=100)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실수(%)	평 균	표준편차	t / F	P
연 령	2~4세	9(9)	2.44	0.43	1.81	0.1508
	5~7세	29(29)	2.88	0.50		
	8~12세	41(41)	2.64	0.52		
	13~15세	21(21)	2.69	0.71		
성 별	남 아	51(51)	2.72	0.54	0.30	0.7594
	여 아	49(49)	2.69	0.58		
출생순위	첫 째	55(55)	2.64	0.56	1.11	0.3504
	둘 째	38(38)	2.79	0.53		
	세째이상	7(7)	2.61	0.69		
재발유무	있 다	24(24)	2.86	0.45	1.51	0.1353
	없 다	76(76)	2.66	0.59		
입원횟수	1~5회	30(30)	2.79	0.45	1.07	0.3455
	6~10회	37(37)	2.60	0.64		
	10회이상	33(33)	2.75	0.55		
치료기간	1~6개월	26(26)	2.73	0.48	0.23	0.9194
	7~12개월	15(15)	2.72	0.54		
	1~2년	24(24)	2.77	0.64		
	2~3년	15(15)	2.67	0.73		
	3년이상	20(20)	2.62	0.44		

과 본 연구의 내과질환아 어머니의 불안 2.54점과는 유사하였다.

박(1996)은 백혈병과 암 질환을 치명적 질환으로, 신증후군·관절염·빈혈·혈우병 등의 장기적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여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하여 치명적 질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56.2점, 만성 질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46.3점으로 보고하였다. 문(1989)은 입원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백혈병, 암, 선천성 심장병, 신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성 뇌막

염을 가진 환아를 만성질환아로, 호흡기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가진 환아를 급성질환아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불안을 알아본 결과 만성 질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61.42±14.69점, 급성 질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49.25±13.65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백혈병 환자 어머니 불안을 박(1996)의 치명적 질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비슷하였으며 만성적 질환보다는 높았으며, 문(1989)의 만성질환아 어머니보다는 매우 낮았으며 급성질환아 어머니의 불안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조경미(1991)가 보고

한 심장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 52.85점과는 유사하였다.

소(1988)의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불안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고위험신생아 부모의 불안은 54.75 ± 10.97 점, 정상 신생아 부모의 불안은 34.32 ± 6.03 점이었다.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은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불안과 비슷하였으며 정상 신생아 부모의 불안과 이(1981)의 심장병 어린이의 어머니 불안(43.86 ± 10.87)보다 높았다. 또한 이은자(1983)의 수술 환자 어머니의 불안(3.01점)보다는 낮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은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보다는 확실히 높았으며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안과는 유사하거나 높았다. 또한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불안과 비슷하였으며 심장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과는 비슷하거나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재발유무, 입원횟수, 치료기간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타자녀의 상실경험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은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노(1984)의 연구에서 환자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입원기간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은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소(1988)가 보고한 환자의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에 따라 부모의 불안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 이(1983)가 보고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불안에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백혈병에 대한 불안은 일반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안혜영(1992)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불안-우울에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의 입원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우울이 심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조(1992)는 어머니의 연령과 종교와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에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불안은 높다고 보고하였다. 문(1989)은 환자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입원횟수와 어머니의 연령, 종교에 따라서는 어머니 불안은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 불안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이(1981)는 어머니의 연령, 종교,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불안에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조(1980)는 어머니의 연령과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학력과 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라서는 차

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간호사는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이 다른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안보다 높음을 인식하고 백혈병을 이기기 위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헤쳐 나아가는 백혈병 환자와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백혈병 환자와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간호중재의 불안 감소에 대한 효과 연구가 요구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정도를 확인하여 백혈병 환자를 관리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그 아동을 보다 바람직하게 간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백혈병 환자 어머니 100명과 편도선절제술 환자 어머니 80명, 내과질환아(암을 제외한 소화기계, 호흡기계 질환) 어머니 112명, 총 292명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Spielberger의 상태-기질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중 상태불안 척도 사용하여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평균 54.16 ± 11.18 점(2.71 ± 0.55 점)이었다.
2.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상태불안(2.71 ± 0.55)은 편도선절제술 환자 어머니의 상태불안(2.38 ± 0.52)과 내과질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2.54 ± 0.56)보다 높았다($F=8.00, P=0.0004$)
3.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타자녀의 상실경험과 백혈병 환자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재발유무, 입원횟수, 치료기간에 따라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상태 불안을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이 다른 질환아 어머니에 불안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 언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반복연구가 시행

되어야 한다. 또한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는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며 그 간호중재의 불안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원 (1988). 사춘기 입원 아동의 불안. 중앙의학, 31(5), 135-140.
- 노승욱 (1984). 학령기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1), 69-81.
- 문영숙 (1989). 입원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임, 박호란 (1996). 학령기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정도. 아동간호학회지, 2(2), 28-34.
- 박승현 (1996). 환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불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2), 19-27.
- 신순식 (1979). 입원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의 불안과 간호(정보제공, 대화중심으로)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영희 (1988).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미 (1981). 심장수술 전 어린이의 불안과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자 (1983). 수술전 교육이 수술환아와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영 (1992). 신중후군 환자 어머니의 불안-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경미 (1991). 심장병 환자 부모교육이 환아모의 불안 및 지식정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일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숙 (1992).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회 (1980). 입원한 환자 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홍경자, 김정은 (1977). 소아과 병동 입원환자 부모의 입원사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의학, 32(4), 427-432.
- 홍경자, 문영임, 백승남, 안채순, 이군자, 임혜경 (1993). 아동간호학, 수문사.
- 홍창의 (1994).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Jay, S. M. and Elliott, C. H. (1990). A stress inoculation program for parents whose children are undergoing painful medical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99-804.
- Fergusson, J. H. (1976). Late psychologic effects of a serious illness in childhoo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1(1), 83-93, March.
- Lilly, L. L. (1990).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pediatric chemotherapy : Management and patient educatio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6(3), 252-255.
- Magni, G. Messina, D. De Leo, Mosconi, A. and Carli, M. (1983). Psychological di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cute lymphatic leukemi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8, 297-300.
- Marlow, D. R. (1988).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Phila. WB Saunders Company.
- Rao, G. P. Malhotra, S. and Marwaha, R. K. (1992). Psychosocial study of leukemia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dian Pediatrics, 29(8), 985-990.
- Sheldon, L. (1997). Hospitalizing children : a review of the effects. Nursing Standard, 12(1), 44-47.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and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eel, S. M. (1989). Health promotion of the child with long-term illness. Norwalk : Appleton-Centry-Croft.
- Tiedeman, M. E. (1997). Anxiety responses of parents during and after the hospitalization of their 5-to 11-year-ol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2(2), 110-119.
- Whaly, L. F. & Wong, D. L. (1997). Essential Pediatric Nursing. St. Louis : The C. V. Mosby.

– Abstract –

Key concept : Anxiety

The Anxiety of Mothers with Leukemic Children

*Park, Sun Nam**, *Moon, Young Im***, *Park, Ho Ran***
*Choi, Sun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nxiety for the mothers of leukemic children an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caring to them.

The subjects were 292 mothers : 100 mothers whose children had a leukemia, 80 mothers whose

children had taken a tonsillectomy, 112 mothers whose children with medical disease except cancer.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of Spilberger and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state anxiety mean score of mothers with leukemic children was 54.16.
2. The state anxiety of mothers with leukemic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est ($F=8.00$, $P=0.0004$).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xiety of mothers with leukemic children in relation to leukemic children's and their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 Doctoral cours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Masteral cours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